

법인 설립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을



▲ 여주육계지부 이홍규 지부장

지난 28일 여주군 한국노총연수원에서 '제5회 경기동부(이천·가평·양평·여주) 4개시군 육계인 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무더운 여름, 닭 사육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날 하루 육계인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주육계지부 이홍규 지부장을 찾아 여주육계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좋은 육계사육 환경

여주지역 양계산업은 지역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육계사육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충주댐과 같은 시설로 인해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주지역 육계농가에서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폭설과 폭우로 타 지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여주지역내 피해는 미비할 정도였다. 또한 위치상으로도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있어 수도권과 근접한 교통조건을 가지고 있다.

회원 화합도모

현재 여주육계지부 회원은 35명으로 보다 많은 회원확보와 재정자립에 힘쓰고 있다. 현재 여주지역내 70여 농가가 육계업을 하며 200만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설립된지 6년째로 서도원 초대 지부장을 시작으로 2~3대 서종원 회장, 이후로 이홍규 지부장이 6대째까지 지부장을 맡아오면서 여주지역의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다.

여주지부는 한달에 한 번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회원들간 의견을 조율하여 양계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동구매와 지원요청 활동

여주지부에서는 사료첨가제와 왕겨 공동구매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회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실익이 되도록 해오고 있다.

이흥규 지부장은 “여주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양계분야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며 현재 왕겨 운송차량을 정부지원을 받아 여주지역 왕겨확보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군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혹서기를 대비해 계사 관리에 필요한 제품과 사항들을 군청에 지원요청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닭을

이흥규 지부장은 “안성지역 법인설립 사례를 본받아 여주지역내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닭고기를 현재의 유통구조에서는 지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을 전하며 ‘경기도에서 경기도 닭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표현을 쓰며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여주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업체와 공동으로 브랜드 개발과 개체포장을 도입해 경기도 지역에 판매처 개척으로 사업확대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주 축산담당자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법인설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혀 앞으로 여주지역 브랜드 닭고기 출현을 기대해 본다.

양계업 하기 좋은 기반여건 확립되도록...

이흥규 지부장은 육계농장의 성공여부의 90%는



▲ 경기 동부지역 4개지역 육계인 대회 모습(이번 대회는 여주지부에서 주최하였다).

건강한 병아리에 있다고 말하며 건강한 병아리 입추가 기본이며 이후 출하까지 건강한 병아리의 철저한 관리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전 여주지역내 농장에서는 가금티푸스가 의심되는 병아리를 입추되어 바이엘 본사에 의뢰해서 가금티푸스에 걸린 병아리로 확인되어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가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은 소송을 해도 농가에서는 장시간 지속되는 공방에 농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한다며 농가의 아픔을 전했다. 더구나 협회차원에서 협회내 육계분과위원회와 종계분과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인티계열에서 받은 병아리의 경우는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항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 피해 농가들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도입과 타 농장방문에서 교훈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육계업을 하는 농가를 만나면 물론 자신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농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받아야 할 사항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세 또한 지닐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리 | 기영훈 기자)